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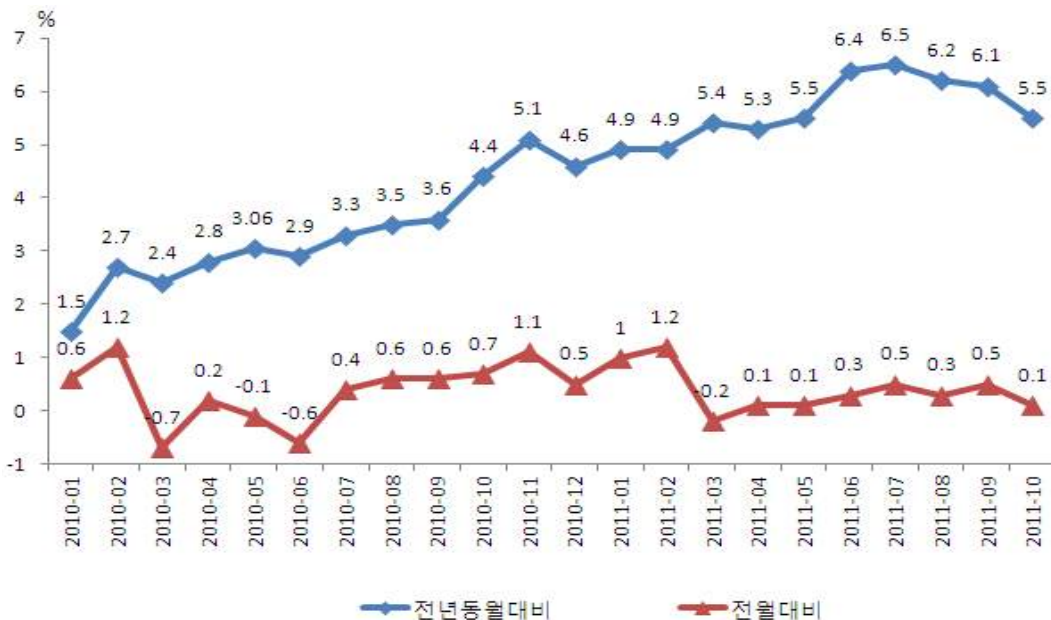
#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로 긴축통화정책 완화 기대 형성

왕양비 연구원

■ 10월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가격 상승률 둔화에 따라 9월보다 0.6%p 하락한 5.5%(전년동월 대비)로 나타나 현저한 하락세를 보임.

- 9월에 비해 1.5%p 하락한 10월 식품가격 상승률(11.9%)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요원인인 가운데, 비식품가격 상승률도 전월보다 0.2%p 하락한 2.7%를 기록함.
- 7월부터 나타난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는 2010년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,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전월대비 현저한 하락세는 중국 소비자물가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〈그림 1〉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



자료: 중국국가통계국.

- 미래 물가수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0월 생산자물가(PPI) 상승률도 9월 6.5%보다 크게 둔화된 5.0%로 나타남.
  - 중앙은행화폐정책위원회 위원 리다우퀴(李稻葵)는 2012년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2.8%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.
-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함에 따라 중국의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일각에선 10월 말부터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자금 공급, 은행 준비금 적립기간 연장 등 중국의 통화긴축정책에 점차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함.
- 월스트리트저널(WSJ)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 3주 동안 매주 국채매매를 통해 자금을 흡수하는 조치와 달리 10월 마지막 주에 960억 위안(약 150억 달러)을 공급함.
  - 또한, 중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나 8월 상업은행의 준비금 적립 규모 확대(확대 규모가 8,900억 위안에 달함)를 요구하였는데, 이 부분 준비금에 대해 6개월 분납을 허용함.
  - 매년 12월 관례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유입되는데(과거 3년 모두 1조 위안을 상회하는 규모), 올 연말 긴축정책이 없다면 각 상업 은행들의 대출가능 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임.
  - 이에 2011년 4/4분기 대출 규모가 6,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, 동 규모는 1/4~3/4 분기의 평균 대출 규모 5,030억 위안에 비해 높은 수준임.

(인민망, 인민은행, WSJ, 11/09 등)